

제주Utd 초대 'K리그2 영플레이어' 노린다

올 시즌부터 신설... 23세 이하 선수 대상 '화수분 축구' 서진수·임덕근·김현우 밀어

올해 신설된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의 주인공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올시즌부터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은 K리그2에서 활약하는 23세 이하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격은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 >해당 시즌 소속팀이 치른 경기의 절반 이상 출장 >K리그 경기에서 처음 출장한 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 등이다.

이에 올해부터 K리그2에 나서는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초대 영플레이어상을 노리고 있다. 그동안 제주는 구자철과 홍정호, 오반석 등

을 국가대표로 성장시켰고, 2016년에는 K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안현범)를 배출했기 때문에 '화수분 축구'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제주에 밀고 있는 선수는 서진수(20), 임덕근(20), 김현우(21)다.

먼저 프로 2년차를 맞은 서진수는 제주 유스 출신 공격수로, 2018년 제42회 문체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득점왕(9골)을 차지하며 제주 U-18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0일 서울전에서 K리그 역사상 10대 선수가 처음으로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덕근은 중앙 수비수로 2018년 제39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천안제일고의 우



(왼쪽부터) 임덕근, 서진수, 김현우.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승을 이끌며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한 바 있는 엘리트 출신이다.

중앙대 출신으로 올해 제주에 입단한 김현우는 즉시 전력감으로 점쳐지는 공격 자원이다. 지난해 U리그에서 무려 13경기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는 등 총 23득점을 기록, 20년

만에 단일시즌 20골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남기일 제주 감독은 "제주에는 잠재력이 풍부한 신예 선수들이 많다"며 "하지만 출전기회는 선의 경쟁을 통해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주어진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손흥민 70m 드리블 원더골 '올해의 골'

'무서운 스피드' 선정 이유 올해의 선수는 더 브라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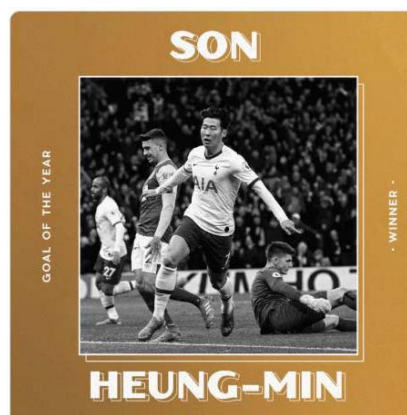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지난해 12월 번리와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경기에서 터트린 '70m 드리블 원더골'이 영국 매체가 선정한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영국 스포츠매체 '더 애슬레틱'은 2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EPL 재개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2019-2020시즌을 결산하는 자체 시상식을 진행하며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매체는 '올해의 남녀 영플레이어', '올해의 골', '저평가된 선수', '올해의 베스트11', '올해의 남자 선수', '올해의 여자 선수'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정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작년 12월에 터트린 '70m 드리블 원더골'을 올해의 골로 선정했다.

당시 손흥민은 자기 진영 페널티



올해의 골에 선정된 손흥민.

지역 부근에서 볼을 이어받아 혼자서 무서운 스피드로 질주해 번리 진영을 가로지른 뒤 득점에 성공해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더 애슬레틱'은 이에 대해 "손흥민은 혼자서 번리 선수들의 대부분을 요리조리 제친 뒤 득점을 했다"라며 "올해의 골의 주인공은 손흥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매체는 올해의 선수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를 선정했다. 연합뉴스



"내 투구는 특이해" 27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연습경기. 4회 초 마운드에 오른 삼성투수 김대우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FA 자격 취득 51명 "어디로 갈까?"

프로농구 스토브리그 개막 '보상 규정' 자유 선수 관심

프로농구 스토브리그 막이 오른다.

KBL은 27일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이대성(KCC), 장재석(오리온) 등 51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프로농구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전주 KCC 가드 이대성(30·190cm)이다.

2018-2019시즌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이대성은 올 시즌에는 KCC로 트레이드된 뒤 11경기에 출전하는 등 약간 부진했다.

그러나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한 데다 신장이 가드 포지션에서 큰 편인 이대성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수다. 리그 전체 선수 중 보수 순위 30위 이내에 들지 않아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 만 35세 미만 등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FA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기존 팀에 보상해야 한다.

보상선수 1명(보호선수 4인 외)과 전년 보수의 50%를 보상하거나 전년

보수의 200%를 내야 한다.

고양 오리온의 토종 빅맨 장재석(29·203cm)의 거취도 집중된다.

장재석은 2019-2020시즌 득점(8점)과 리바운드(4.7개)에서 개인 최다 기록을 썼다. 장재석 역시 보상 규정에서 자유로운 선수여서 골 밑을 보장하려는 많은 팀이 영입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FA 자격을 얻은 51명의 선수 중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선수는 이관희(삼성), 김지환(전자랜드) 2명이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지만 만 35세 이상이거나 보상이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선수는 윤호영(DB), 문태영, 김동욱(삼성), 양동근(현대모비스) 등이다. 이 중 양동근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2017-2018시즌까지 현대모비스에서 뛰었던 이지원은 2018년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올해 51명의 FA 대상자 중 하나가 됐다.

또 2019-2020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총 54명의 선수 중 강바일(삼성), 장문호(SK), 주지훈(LG), 정진욱(KT)은 2019-2020시즌 출전 가능 경기 중 절반에 미달해 기존 계약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야구 미국 스포츠팬 만난다

중계권 협상 성사 직전 일주일 5경기 안팎 전송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을 통해 미국 스포츠팬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ESPN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7일 연합뉴스에 "ESPN의 KBO 리그 중계권 계약이 거의 성사 직전"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일주일 만에 5경기 안팎으로 중계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BO 리그는 코로나19를 뚫고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준비 중이다.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른 개막을 준비하는 KBO 리그는 먼저 시작된 대만보다 한 등급 위의 리그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메이저리그가 언제 재개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한국야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ESPN은 KBO 리그의 국외 판권을 따낸 에이클라가 가장 먼저 중계권 협상을 요청한 곳이다.

하지만 미국 내 유료 시청자 수만 1억명에 달하는 ESPN이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KBO 리그 경기 영상을 무료로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ESPN에 KBO 리그 영상을 제공하려면 미국으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구매 등 상당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에 무리한 요구였다. KBO 역시 "KBO 리그가 미국에서 중계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판권을 가진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상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한국야구를 '무료 콘텐츠'로 인식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다. ESPN의 무료 중계권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방송사 NBC는 "ESPN의 무료 중계권 요구는 상당히 기이하다"며 "돈을 내지 않고 한국 프로야구를 중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성사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이클라 측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KBO 리그의 미국 중계가 성사된다면 2018년 대만에 중계권을 판 이후 두 번째 해외 판매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NANCOM FIT

지붕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눔핏이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나눔핏은 단독주택 옥상부터 축사, 창고 및 상업시설의 지붕 위에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맞춤형 브랜드입니다.

- 10년 무상 유지보수
- 48시간 이내 AS 지원
- 20년 후 폐기물 무상수거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20.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큐셀(Q-CELL) 제주도 쿠팡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